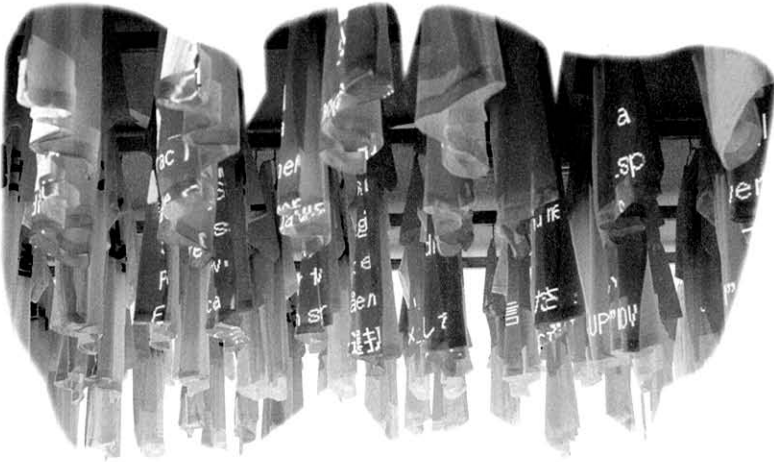


## 광주비엔날레상 수상



사업회가 주관한 광주비엔날레 현장3 [그 밖의 어떤 것-마이너리티]가 제5회 광주비엔날레상을 수상하였다.

광주비엔날레 창설 10주년을 맞아 비엔날레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 작가에 대한 창작활동 지원과 육성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선정한 광주비엔날레 상은 사업회가 수상한 광주비엔날레상을 비롯한 빛고을상, 광주은행상, 한국문화재단상 등 4개 분야에 걸쳐 수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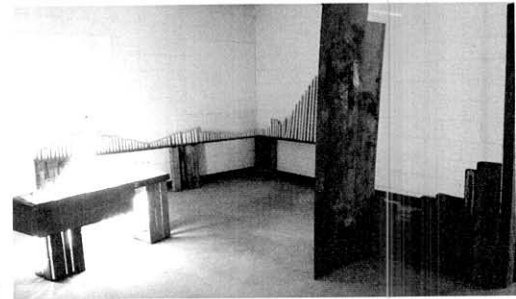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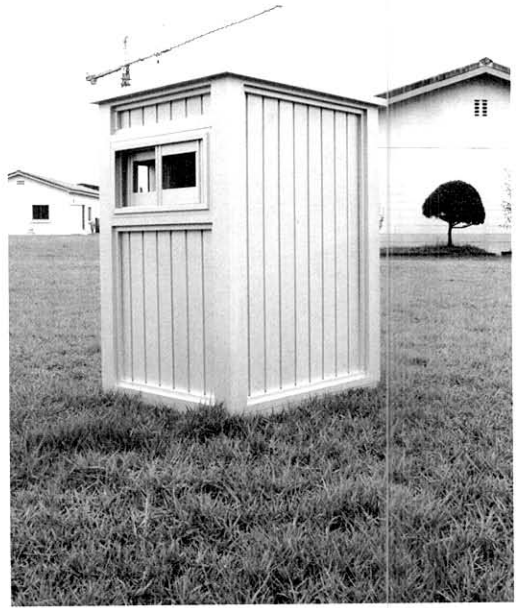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김우창 교수와 제5회 광주비엔날레 외국인 큐레이터 및 미술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차례로 전시현장을 돌며 꼼꼼하게 살펴본 결과 만장일치로 현장3을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제의식이 잘 반영된 작품에 수여하는 비엔날레상 수상작 [그 밖의 어떤 것-마이너리티](큐레이터 박찬국, 정희승)는 5·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바라보는 인권과 평화의 의미 그리고 5·18의 의미를 짚은 시각으로 사실적으로 형상화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업회는 지난달 10일(금), 공식 개막식에 앞서 상패와 함께 상금 미화 5,000불(약 600만 원)을 전달받았다.

2004 gwang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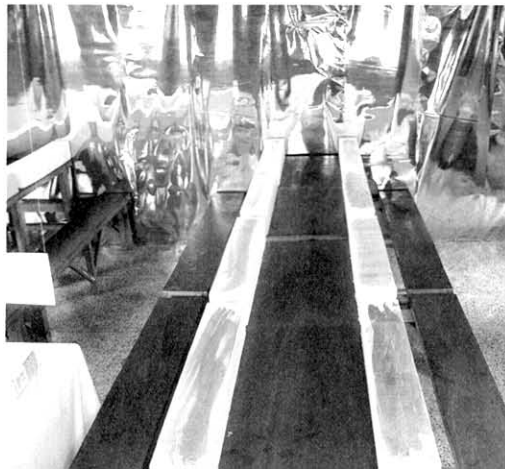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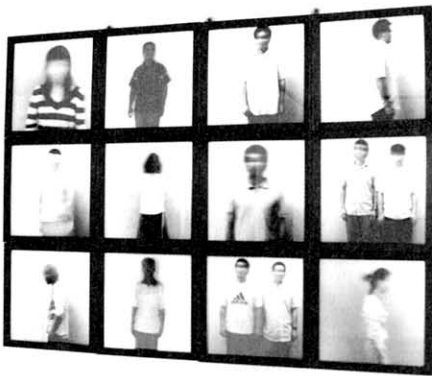
그 밤의 어떤 건  
 마이너리티  
 2004. 9. 10 ~ 11. 13 | 5.18자유공원과 광주시내  
 www.minority.or.kr

2004 광주비엔날레  
 \* 2004 광주비엔날레  
 \* 2004 광주비엔날레  
 \* 2004 광주비엔날레

**현장3**

주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후원: 5.18기념재단  
 art-ohmynews 광명기회 (02) 5111  
 마이너리티 포럼 후원기회 ohmynews





## 앗싸! 마이너리티

박찬국 광주비엔날레 현장3 큐레이터

**막** 만들어진 도로 위에 이상하게 걸터앉은 듯한 낯고 특이한 구조의 건물들이 있다. 주변에는 비에 젖은 붉은 흙들이 쌓여 있고 건물들이 놓인 위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듯이 직각으로 꺾어져 들어온 검은 도로의 진노란 색 중앙 분리선이 너무나 선명하다.

항쟁 당시 잡혀온 시민군들을 감금하고 가혹한 고문과 턱없는 사형, 무기징역을 남발했던 장소인 옛 상무대 헌병대 건물들은 이처럼 폐기처분 직전의 마지막 모습을 사진으로 남긴 채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는 원래 자리에서 100여 미터 옮겨 복원된 광주 5·18 자유공원 옛 상무대 영창에 걸린 이 한 장의 사진은 막개발 건설에 밀려 무참히 사라지는 우리 사회의 개인과 사회적 기억들이 어떻게 뺨치리 되는지를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다.

### 상무대 영창에 걸린 한 장의 사진

바로 그 공간, 그날의 땀과 한숨과 피멍은 지워지고 흰 페인트와 파란색 잔디가 돋보이도록 어설피게 재현된 공간에서 지금 2004 광주비엔날레 현장3 전시가 열리고 있다.

주변은 온통 높다란 아파트가 들어차고 골프 연습장도 있고 정면으로는 타워 크레인도 무심히 돌아가면서 여전히 공사 중이다. 그렇지! 언제 어디서나 공사 중,

공사 중이 아니면 대한민국이 아니지.

### 관리되는 기억

“어이 거기 못 박지 말아요. 잔디 망가져요. 소장님 아시면 큰일 납니다.”

전시 설치 기간동안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잔소리는 거대한 5월 기념물들처럼 답답하고 숨차게 만든다. 폐기해야 할 가치와 보존해야 할 가치에 대해 누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항쟁의 희생자들에게 준 얼마간의 위로금과 기념사업에 의해 이제 광주의 5월은 박제된 채로 역사책에서 암기해야 할 대상이 되고 만 것일까.

망월동의 높다란 기념 조형물에 매달린 작은 사람을 묘사한 '광주의 페르소나'에서 작가 신현경은 역사적 사건에서 기억의 주체인 나를 배제하는 일방적 기억 시스템에 대해 낮지만 통렬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 '위선 떨지 마!'

끊임없이 공사 중인 활력파잉의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근육을 늘리는 치열한 현장인 학교와 직장, 도시의 거리거리에서 불철주야로 뛰고 있다. 철거 현장의 잔해들을 신고 시내를 질주하는 덤프 트럭 위에서 열심히 수영하고 있는 작가 고승욱의 '철인경기' 모습은 우습지만 오늘 우리의 또 하나의 적나라한 자화상이다.

이번 전시는 이렇게 끊임없이 공사 중인 상황,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고 마냥 달리는 한국 사회,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몸짓이 크면 클수록 제대로 된 내용이 빠진 위선적이고 경직된 관리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 마이내리티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거대하고 웅장하고 매우 조형적인 스펙터클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정신없이 돌아가는 화면 속에서 이리저리 훑쓸리다보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 따위에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다. 매사가 게임으로 보이고 게임에서 이기느냐 지느냐가 사느냐 죽느냐로 읽히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다른 가치를 말하면 무조건 탈락자로 간주한다. 자의든 타의든 탈락자들은 탈락의 대가를 치러야 마땅하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는 최소화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이내리티들은 다르다. 탈락이든 선택이든 마이내리티의 입장에 있을 때는 가치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 누군가가 평등, 평화, 인권을 외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그것을 실현하는가가 중요하다.

눈이 어둡고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는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가.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도 큰 불만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동성애자나 여성들도 마땅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가. 욕심 때문에 불필요한 살생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가 등등을 그들은 다름 아닌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내리티들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된 가치들과, 너무 낮익어 낯 설은 것들 속에서 값지고 소중한 의미들을 발견한다. 마이내리티 관점의 핵심은 무차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와 지식, 시각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오히

려 잃어버린 응시의 능력을 상기시켜 주는데 있다. 그리고 발견한 가치의 실현을 통해 진짜 살만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한다.

도시, 생활, 제도에 개입하고 리포트를 보여주는 전시 비엔날레라는 거대한 이벤트 안에서 기획자와 작가들은 가능하면 새로운 어법으로 크고 완벽하게 자신의 생각을 보여주려 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기존의 유통구조와 권력관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옛 상무대 자리에서 열리는 현장3 전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현장3 전시는 2년마다 광주에서 열리는 비엔날레가 지역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섞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매 회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켜 갈 것인가에 대해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현재 상황을 비평적으로 드러내고 마이내리티의 관점으로 말하기, 도시를 조사하고 문화와 담론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행적 쫓기, 작가와 청소년, 학생과 교사들이 한 그룹이 되어 대안적인 도시모델 만들어 보기, 그렇게 학생들이 만든 결과물을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검토하고 논쟁적으로 자치단체가 수렴해 나가기 등이다.

비엔날레에 대한 나쁜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라도 지나친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버려진 생선 상자와 부유하는 닭털, 주방 수세미, 하찮은 고물들이 큰소리 내지 않고 어떻게 상상력을 자극하는지 가족 친지와 함께 와서 즐기면 된다.

만약 시간이 허락되면 125번 버스에 몸을 싣고 담양의 풍물을 작가와 함께 체험 할 수 있고, 야밤에 영상물을 싣고 시내로 배달 나가는 조 선생의 영상 게릴라 버스에 동승해도 좋을 것이다.

## 재기발랄한 광주의 재발견

주정현 간호사

비엔날레를 구경하러 갔다가 전시안내문을 보았다. '마이너리티, 그 밖의 어떤 것'. 맘에 든다. 무료 셔틀버스가 있단다. 그것을 타고 가기로 한다. 전시 안내문에 있는 그림이 마치 웅성웅성 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린 것 같아 왠지 재미있을 것 같다. 상무 5·18공원은 지난번 전시 때 안 좋은 기억이 있었지만 - 너무 어둡고 칙칙했다. 5·18 당시의 광주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됐다. - 왠지 웅성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 한 20분을 타고 가니 그때의 공원에 도착했다.

일단 박스도시 차차차라는 것이 안 보인다. 은근히 기대했는데, 자원봉사자에게 물으니 비가 와서 그런단다. 그렇지만 재작년 보다 재미있어 보인다. 운동장 가득 펼쳐 있는 비닐로 쳐진 미로, 감옥 주위에 있는 아이 콘들, 책상 계단 ..... 나를 능동적이게 하는 것들이었다. 불로동 화실은 과거의 냄새가 난다. 그리고 그 나레이션이 맘에 들었다. 믹스라이스의 골방에서 나오는 한국어로 조합한 그 노래가 왠지 블랑카가 생각나 웃기도 했지만, 결국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니 안타깝기도 하다.

해태타이거즈, 나는 80년 초반까지 서울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 당시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 모르지만, 해태타이거즈는 잘 안다. 그걸 보니, 그래 그 당시에는 이런 정도를 위안으로 삼고 살았구나 싶어 서글프다는 생각이 든다. 문신 가게, 나도 만약 간호사가 아니라면 그리

고 서울에 산다면 꼭 하고 싶은 것 중 하나다. 문신 tattoo,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상하다. 이 동네에서 그런 것 하면 완전 이상한 사람 되겠지? 그래서 저 문신 가게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자 한 것일까?

전시장에 왔지만, 전시장 같지 않은 보다 즐거운 장소에 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친구가 항상 말하는 정신적 유희가 바로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비엔날레는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 봐야 하는, 마치 속기 혹은 암기식 교육장에 들어간 기분이었다. 참여 관객제라고는 하지만 별로 감이 안 온다. 혹 그거, 얼굴 마담제 아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

### 정신적 유희를 누리다

이곳에는 자원봉사자가 너무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 작은 인원으로 이 큰 장소를 관리한다고 생각하니 꽤나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원봉사자에게 이번 전시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니, 내가 생각했던 그것과 상통했다. 치유, 이번 전시에서는 그런 냄새가 난다. 그때의 상황에서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 암울했지만, 그리고 여전히 힘들기는 하지만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미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곳에서 그래도 그나마 밝은 희망을 보았다. 더 이상 어두운 광주의 모습이 아니라 재기발랄한 광주의 모습 말이다.